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2, pp.421-429  
<https://doi.org/10.29212/mh.2024..132.42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참관기] 6·25전쟁 연구 관련 새로운 성과의 모색

- 2024년 6·25전쟁 학술회의: 중공군과 유엔군의 6·25전쟁 참전 고찰 -

전윤재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 1. 들어가며

지난 2023년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었으며, 반년 앞으로 다가온 2025년은 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이다. 전쟁의 포성이 잠시 멈춘 뒤 70여 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각에서는 6·25전쟁을 마치 먼지 쌓인 앨범 속의 빛바랜 사진처럼 현재와 동떨어진 머나먼 과거의 일로 치부하거나 더 이상 연구할 과제가 남아있지 않은 '종결된 사안'으로 여기기도 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6·25전쟁은 우리 현대사에서 절대 지나칠 수 없는 큰 비극이자 군사사적 측면에서도 여러모로 고민하고 생각할 여지

가 많은 사건이다. 그런 만큼 지난 70여 년 동안 6·25전쟁과 관련된 국내·외의 많은 연구가 이뤄져 왔음에도 아직까지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세부 주제, 혹은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 따라 재해석이 필요한 사안들은 여전히 산재해있으며, 많은 뜻있는 연구자들의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

## 2. 새로운 연구성과 모색의 장: 2024년 6·25전쟁 학술회의

이에 2024년 6월 19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6·25전쟁 연구의 보급 및 새로운 연구성과 촉진을 위하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2024년 6·25전쟁 학술회의: 중공군과 유엔군의 6·25전쟁 참전 고찰>을 개최하였다. 본 학술행사에는 군내·외 6·25전쟁 연구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원들이 참석하였으며, 발표 구성은 <표 1>과 같이 4명의 발표자가 4개의 주제를 다루었다.

<표 1> 2024년 6·25전쟁 학술회의 주제 및 발표·토론자

| 주제   | 발표자                   | 토론자                     |
|--|-----------------------|-------------------------|
| 중공군 4차 공세에 관한 주요 쟁점과 평가  | 김영환<br>(육군군사연구소)      | 황수현<br>(국방부<br>군사편찬연구소) |
| 6·25전쟁 시 중공군이 사용한 통상명칭에 관한 고찰                                  | 김상규<br>(육군군사연구소)      | 한상준<br>(아주대학교)          |
| 6·25전쟁 유엔군 전사자 추모공간의 군사사적 연구<br>: 1964년 유엔기념묘지 추모관 건립 의의를 중심으로 | 이정선<br>(도쿄대학교)        | 나종남<br>(육군사관학교)         |
| 태국의 정체성과 6·25전쟁 참전   | 갯사라편 한개우<br>(이화여자대학교) | 케와린 시무앙<br>(한국 외국어대학교)  |

〈사진 1〉 발표·토론자 및 주요 참석자 단체사진



첫 번째로 육군군사연구소의 김영환 박사는 「중공군 제4차 공세에 관한 주요 쟁점과 평가」라는 주제로 해당 공세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대체로 지평리전투와 횡성전투 등 개별 전투에 주 초점을 두고 그중에서도 특히 ‘일방적으로 패배한 전투’라는 관점으로 횡성전투를 바라보았던 반면, 발표자는 공세 전체의 큰 틀에서 각 전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동시에 중국 측 자료의 분석을 통해 중공군 제4차 공세를 새로운 관점으로 검토하였다. 즉 제4차 공세는 중공군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행되었으며, 전력의 불충분으로 인해 ‘노력의 집중’이 필요하던 상황에서 미군에 비해 전투력이 낮았던 국군을 격멸함으로써 전과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국군 제8사단의 패배 등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대대의 철수업호전 성공과 국군 제3사단의 지연전 성공으로 인해 국군과 미군을 대규모로 포위 섬멸하고자 했던 중공군의 작전목표는

좌절되었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중공군 스스로 횡성전투를 온전한 승리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횡성전투를 포함하여 6·25전쟁 중 시행되었던 여타 전투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발표자는 ‘노력의 집중’이 필요하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공군 측이 당초의 주공 방향과 배치된 지평리 공격을 실시한 의도, 그리고 그로 인한 전선의 이중화가 중공군의 목표 달성 실패에 미친 영향 등 향후 6·25전쟁사 연구를 위한 후속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사진 2〉 제1세션 발표·토론사회자의 모습



두 번째 발표는 육군군사연구소 김상규 박사의 「6·25전쟁 시 중공군이 사용한 통상명칭에 관한 고찰」로서, 6·25전쟁 중 노획된 중공군 문서의 분석을 통해 중공군의 다양한 통상명칭 양상

을 소개하고 그러한 명칭들의 일부 제작방법을 분석하였다. 발표자는 노획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서 통상명칭 확인을 통한 문서 작성부대의 판단이 선결조건임에도, 그간 중공군 통상명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던 동시에 내용 측면에서도 오류가 존재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중공군의 통상명칭에 있어서 각 제대별로 특정한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기존 연구와 달리, 동일한 용어가 사단 혹은 연대 통상명칭으로 사용되는 등 제대별로 통상명칭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중공군 각 부대에 한 개의 통상명칭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음을 밝혔다. 또한, 발표자는 노획문서 분석을 통해, 중공군 통상명칭이 상당수 불규칙적으로 제작되었으나 고유명칭 부대번호에 특정 숫자를 더하거나 지명 또는 각 부대장의 성씨를 토대로 하는 등 어느 정도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작되기도 하였음을 밝혔다. 비록 관련 정보의 제한과 체계 자체의 불규칙성 때문에 중공군 전체 부대의 통상명칭을 분석하지는 못했다는 일말의 아쉬움이 존재하긴 하나, 그럼에도 이러한 연구는 중공군의 부대번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후속 연구자들의 1차 사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앞선 두 발표가 중공군 관련 사안 등 기존의 6·25전쟁 연구와 어느 정도 친숙한 분야를 다루었다면, 후반부 세션의 발표들은 유엔군 전사자 추모공간 및 태국의 참전 등 이제까지 잘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초점을 두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도쿄대학 차세대인문학개발센터의 이정선 박사는 「6·25전쟁 유엔군 전사자 추모공간의 군사사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유엔군 전사자묘지 내 추모관 설립 과정을 분석하여, 냉전기에 건립된 6·25전쟁 추모공간의 함의를 조명하였다. 1951년 건립 이래

유엔군사령부의 관리하에 운영되었던 유엔군 전사자묘지는 1959년 한국-유엔 간 협정 체결 후 관리 주체가 미군에서 유엔 산하기관이었던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유엔의 정식 산하기구인 유엔기념묘지로서 공적 위상을 획득하는 동시에 전략적 '유엔화'의 과정을 겪었다. 유엔의 이상이 반영된 묘지 발전 계획의 제1호로서 1964년 완공된 추모관은 바로 그러한 전략적 유엔화의 결정체이자, 유엔의 정신과 가치가 응축된 가장 핵심적인 추모공간이었다. 발표자는 유엔의 예산으로 추모관 건립을 지원하고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등 특정 전쟁기념물에 대해 이례적 지원이 이뤄진 것에 주목했으며, 추모관 건축과정에서의 유엔 측의 개입, 건물의 디자인에 내포된 세부요소, 그리고 추모관 개관식 당시 유엔 사무차장이 사무총장을 대신해 직접 내한하여 헌사를 바친 것의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유엔 사무차장의 개관식 헌사에 담긴 메시지에서 드러나듯이, 냉전 체제하에서 양 진영 간의 조율과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에의 대응 능력을 시험받고 있던 유엔의 입장에서 추모관은 6·25전쟁에 동원된 다국적 유엔군 전사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의 공간이자, 인류 전체의 화합과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의 기념비'이기도 했다고 평가하였다.

〈사진 3〉 제2세션 발표자와 사회자의 모습



마지막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의 께사라뻘 한개우 (Katesaraporn, Hanklaeo)는 「태국의 정체성과 한국전쟁 참전」이라는 제목으로 태국의 6·25전쟁 참전 이유와 과정, 그리고 참전이 태국의 국가 정체성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태국은 세계 정치무대에서의 지위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국제정치 참여와 강대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추구하였다. 6·25전쟁 발발 후 유엔이 회원국들의 참전을 요청한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전투부대 파병을 통해 자유진영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태국의 지역적 영향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발표자는 또한 태국 내부적으로는 전쟁 참전 결정이 정부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동기에서도 비롯되었음을 강조하였다. 당시 태국 군사정권은 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과의 동맹 체결 및 이후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 권위가 실추되어 있었으나, 한국

에 대한 전투부대 파병은 군의 명예 회복 및 군 관련 집단으로부터의 지지 강화에 일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태국 정부는 파병부대의 출정 행사 시 국왕 앞에서의 선서식 등 왕실 관련 의식을 부활시켰는데, 발표자는 이것이 왕실 의식을 활용한 군의 권위 강조, 국가 권력의 표현,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국민의 공동의식 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이후 태국의 국가 정체성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였다. 비록 언어상의 제약에 따른 약간의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으나, 해당 발표는 6·25전쟁 연구에서 자주 다루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 참전국 관련 사안을 당사국 출신 연구자의 관점에서 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었다.

### 3. 마치며

기존의 전투 연구에 대한 새로운 해석,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새로운 내용, 혹은 통상적인 6·25전쟁 연구와는 다소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는 새로운 분야 등이 주축이 된 발표였던 만큼,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지정된 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발표 자체 외에 토론과 질의응답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보다 선명해진 사안들도 많았으며, 이 또한 많은 문제의식을 제 공한 뜻깊은 기회였다.

한편, 본 학술행사는 과거 간헐적으로만 개최되었거나, 정기 개최를 계획하고도 코로나 19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그간 뜻을 이루지 못해왔던 군사편찬연구소 주관 6·25전쟁 학술

회의가 참으로 오랜만에 결실을 본 사례였다. 근 몇 년 만의 행사 개최로 인해 구성과 진행 등에 다소간의 시행착오도 발생하긴 했지만, 금번 행사를 바탕으로 차후에는 보다 발전적인 모습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내년 2025년은 6·25전쟁 발발 75주년이라는 상징적 의미상 올해보다 6·25전쟁 관련 학술행사가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다 많은 학술기관단체들과의 교류 및 보다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를 통해 6·25전쟁에 관한 연구 저변이 확대되고 새로운 연구성과들이 촉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